

‘TV광고는 옛말’... 시중銀, 유튜브로 Z세대 잡는다

〈2000년 전후 출생자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

4대 시중은행 유튜브 구독자 증가 KB국민, BTS광고 조회 800만 돌파 밴즈 등 유튜브와 가입 독려 이벤트 KEB하나, 김하은과 ‘청춘’ 콘텐츠 우리, ‘핑크퐁’ 활용해 동영상 제작

시중은행의 광고 플랫폼이 TV나 신문 지면에서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다. 미래 주요고객이 될 Z세대(2000년 전후 출생자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 맞춘 홍보 효과를 겨냥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 광고 및 홍보영상 제작에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총 8만5552명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약 3개월 전인 2월에 4대 시중은행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5만명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왼쪽부터) KEB 하나은행의 ‘하나되어 외쳐봐, 대한민국 WE ARE 100’, KB국민은행의 ‘Liiv x BTS’ 유튜브 콘텐츠. /각사

약 만명 넘는 구독자가 신규로 유입된 셈이다.

물론 이 같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유튜브 채널은 약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해야 광고·홍보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향후 주요 소비 계층으로 부각될 Z세대를 공략하기에 유튜브 콘텐

츠는 최적화된 창구라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2%, 국내 인구의 12.5%를 차지하는 Z세대는 향후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주요 소비자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Z세대는 TV보다 모바일이 익숙하며, 유튜브 등 시각물 위주의 소셜미디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들은 일찌감치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광고·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영국 테스코은행과 아일랜드은행,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은 유튜브를 통해 광고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헬프 데스크 등을 운영해 자사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

국내 은행업계 또한 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방탄소년단과 함께 제작한 ‘KB스타뱅킹’ 유튜브 광고는 현재까지 조회수 807만회를 기록했으며, KEB하나은행이 김하은과 함께 제작한 ‘청춘, 그 하나하나’ 콘텐츠는 조회수 571만회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또한 유아용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을 제작한 스마트스터디와 영유아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유아 저축권장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 협력키로 했다. 영유아 콘텐츠 중 조회수 26억회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끈 핑크퐁 캐릭터를 유튜브와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 ‘리브톡톡(Liiv TalkTalk)’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앱을 통해 ‘밴즈’, ‘대도서관’, ‘소프’ 등 12명의 유튜버 인플루언서에게 투표하면, 이들이 서로 주제를 바꿔 방송을 제작하는 식이다. KB국민은행은 앱을 통해 선정된 1등 유튜버를 KB국민은행의 디지털 모델로 선정할 계획도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광고 및 마케팅 경로가 TV와 같은 기존 매체에서 10대와 20대가 흔히 접하는 유튜브 등의 디지털 채널로 이동했다”면서 “금융시장에서 신흥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Z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마술사·교수 ‘청소년 꿈 멘토링’ 강연

KB국민은행 ‘꿈꾸는대로 시즌7’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청소년의 멘토 KB!’ 꿈꾸는대로 시즌7 진로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현우 마술사가 ‘편견을 넘어 꿈과 희망에 주문을 걸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과학자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꿈꾸는대로’ 진로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전국 2만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관심 진로 분야 전문 멘토와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직업의 의미와 역량 개발 방법 등을 전수받으며, 진로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꿈꾸는대로’ 진로콘서트는 올해 상반기에 이번 서울 행사에 이어 용인, 춘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열린 ‘청소년의 멘토 KB!’ 꿈꾸는대로 시즌7 진로멘토링 행사에서 최현우 마술사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천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영 작가, 김현우 구글 아시아 태평양 총괄 전무가 멘토로서 참여한다.

또 오는 25일에는 강남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상반기 주말 진로 멘토링’이 개최될 예정이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와 이상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멘토가 되어 ‘꿈’이라는 주제로 1000여 명의 청중들에게 강연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외국인 고객님, 일요일도 영업점 오세요”

KEB하나은행

광주 광산지점에 일요일 영업점 개점

KEB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손님의 금융편의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광주광역시 광산지점에 일요일 영업점을 개점했다고 1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손님을 위해 현재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이번 광산지점이 추가됨으로써 평일과 일요일 모두 문을 여는 일요일 영업점 16개,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일요일 송금센터 3개 등 총 19개의 일요일 영업점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광산지점의 일요일 영업 개시로 그동안 먼 일요일 영업점을 방문해 큰 불편을 겪었던 호남지역 외국인 손님들은 외화송금, 환전은 물론 일반 은행업무까지 대폭 확대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광산지점의 일요일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설날 및 추석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무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손님의 금융편의 확대를 위해 호남지역에 시중은행 최초로 광주광역시 광산지점에 일요일 영업점을 개점했다. 개점식에 참석한 정민식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사진 오른쪽에서 5번째)과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담당(사진 맨 오른쪽),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사진 오른쪽에서 6번째)이 행사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광산지점 일요일 영업점 개설과 더불어 건물 2층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간의 친목도모 및 각종 교육, 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 영업시간 중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KEB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들과의 보다 원활하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 태국,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등 10개국 출신 외국인들을 채용해 최고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ATM기에서는 17개, 스마

트폰 뱅킹에서는 13개의 해당국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민식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은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산지점에서 일요일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KEB하나은행은 국내 최고의 외국환전문은행을 넘어 글로벌 은행으로서 당행만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신한카드, ‘반 고흐 체험전’ 단독 할인

신한카드는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 체험전(이하 반 고흐 체험전) 15% 단독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체험전은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서 제작한 공식 체험 전시회로서 국내 최초로 진행된다.

체험전은 오는 8월 25일까지 우정아트센터(舊 로댕갤러리)에서 열린다. 단 순히 명화를 보는 것을 넘어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그의 예술과 삶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관람료는 성인 1만6000원, 청소년(만 7~18세) 1만3000원, 미취학아동 8000원이며 신한카드(신용·체크·법인 포함)로 결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키스해링겐 등 특색 있는 전시회를 고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반 고흐 체험전도 그 일환”이라며 “이번 체험전은 반 고흐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는 테마 전시라는 특징이 있는 만큼 많은 신한카드 고객들이 그의 삶과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BC카드로 쿠바를 왕복 9만9000원에”

‘여행엔BC’ 추첨 이벤트

BC카드가 쿠바행 왕복항공권을 특가에 제공하는 ‘여행엔BC’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0일까지 BC카드 페이북(paybooc)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 중 15명을 추첨해 쿠바행 왕복항공권을 1장 당 9만9000원에 제공한다. BC카드 고객이라면 전원 실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당첨 고객은 6월 1일부터 2020년 1월 12일 사이에 성수기(7월 19일~8월 18일)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여행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당첨 고객은 27일 개별 안내되며, 27일~28일간 본인 포함 2매까지 예매하면 된다.

쿠바 호텔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페이북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한 BC카드 전용 익스피디아 홈페이지에서 쿠바 소재 제휴호텔을 예약하면 기본 할인가격에 10% 추



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BC카드 고객이 합리적으로 쿠바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